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사례

박 희 명 (한국농촌공사 지역계획팀)

1. 서 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말 ‘농림어업인외생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에 따라 농산어촌지역개발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첫째 ‘90년대 이후 도·농간의 생활환경 경차해소를 위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마을도로, 상·하수도, 주거단지조성·재정비 등 기초생활환경정비 위주의 사업으로 주민편익증진에는 일정부분 기여하였으나, 최근 들어 농촌다움(Rurality)을 유지하면서 쾌적함을 높이는 종합적인 농촌공간 정비효과는 미흡하였었다.

둘째는 최근 들어 소득증가, 주5일제 근무제 시행, 교통망 확충 등의 사회적 여건변화로 농촌을 단순한 생산공간이 아니라, 생산을 물론이고 전원주거, 휴양,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전원생활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즉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과 지역개발을 연계시켜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이를 토대로 주민소득창출 등 지역활성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셋째 사업추진방식이 지방화 분권화시대에 맞게 주민, 지자체 등 지역역량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사업추진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동일한 영농권 생활권내에 같은 특성을 지닌 인근마을들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종합적 개발을 함으로써 자생력을 갖춘 농촌지역사회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96개 권역이 선정되어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다.

기본계획수립은 한국농촌공사에서 계획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개발,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과 사업화방안,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12

환경, 생태, 경관,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컨소시엄을 구성('06년까지 약 80여명의 전문가 참여)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기본계획수립시 일부권역에 대하여는 민간 전문기관에 완전위탁하여 시행('06년까지 96개 권역 중 21개 권역 민간위탁)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는 외부 전문가들을 권역별 전담 자문가로 위촉하여 계획수립 전반에 걸쳐 자문 등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소득시설, 경관시설 등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경제적 타당성 등 전문적인 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계획수립과정에서 2단계의 자문제도를 도입하여 권역내 주민을 비롯한 지자체, 시도 및 농림부 등 관련기관과 분야별 전문가 6 ~ 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개발 구상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과 검토 과정을 거치게 하는 등 중장기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업초기에 처음 시도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추진할 지도자가 부족하며, 특히 마을간, 주민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마을개발구상에 대한 합의점 도출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검증되지 않은 주민들의 개발수요에 대하여 지역 특성과 장래 비전을 도출하고 이를 설득, 반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또한 전형적인 농촌주민들의 요구와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지차제 등 행정기관의 의견이 상호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계획수립자 입장에서 이를 조정 수렴하여 최적안을 도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에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사업시행 초기에 비해 지역역량이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본 사업을 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체 견학을 다니고 교육을 받고 있어 공동체 활동 붐이 조성되고 있는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

2) '2005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시행계획 점검,평가보고서'(2006. 4)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첫째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권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정비와 소득기반조성, 자연생태계보전 등 다양한 사업내용을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개발의사가 폭 넓게 반영될 수 있는 사업임, 둘째 대상지 선정과 주민, 전문가, 관련행정기관의 파트너쉽이 폭넓게 작동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그 예가 많지 않은 경우라 할 수 있음. 셋째, 특히 이 사업에서 도입한 마을 사무장 제도는 농촌개발분야에서 처음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이 사업의 지속적 관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의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본 원고에서는 기본계획수립 사례를 통해 지역주민 협의를 통한 합의점 도출과정과 주민들의 역할, 향후 기본계획 수립시 개선방안과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기관 역할 분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상향식으로 추진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권역 전체가 하나가 되도록 해야하므로 사업추진 전과정에 걸쳐 주민이 주도가 되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을 기본전제로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과 전문가 등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며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³⁾

가. 지역주민

- 권역별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마을개발협의회에 참여, 예비계획의 수립 및 사업신청, 명예공사감독 운영,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나. 시장, 군수

- 예정지 조사 및 예산신청, 마을개발협의회 구성 운영, 기본계획수립, 권역사무장 채용 운영, 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유지관리, 마을정비구역 고시 등
- 사업시행 주체로서 사업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획수립,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
-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및 지원기구로 적극 활용
- 사업대상 권역 마을지도자 및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

3) 농림사업시행지침

다. 시도지사

- 예산신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마을 정비구역지정 승인 신청 등
- 시군의 사업시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연차별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토록 지원
- 시군 공무원 및 주민대상 교육 및 워크숍 등 실시
- 사업추진 상황 점검, 평가, 보완대책 추진 및 건의

라. 한국농촌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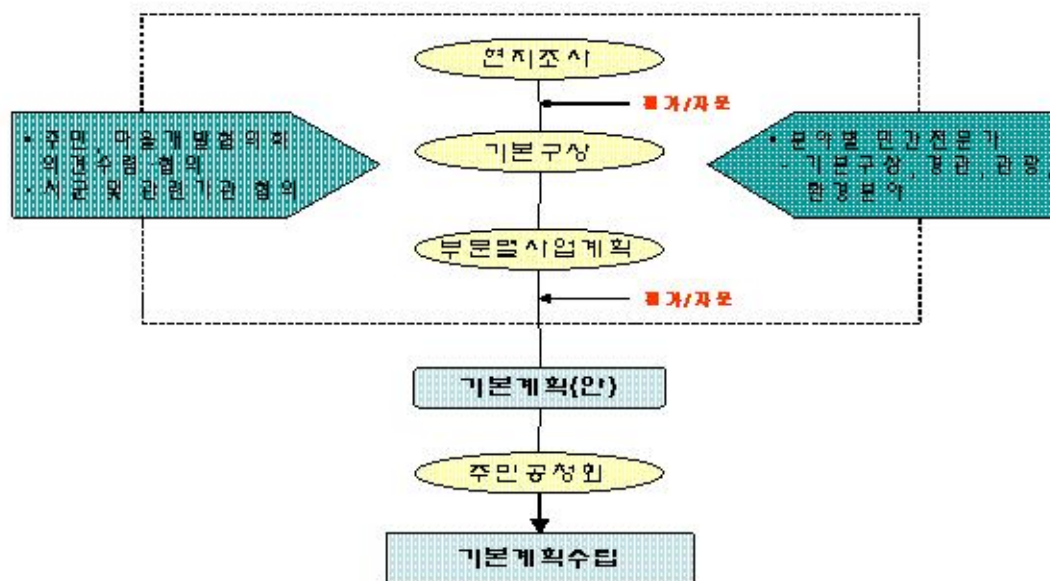
- 권역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안 작성 및 기술지원(설계, 감리, 사후관리), 지역발전 컨설팅, 사업시행(계획수립), 마을주민 교육 지원 등

마. 농림부

- 기본방침 시달, 대상지 선정, 예산지원, 추진상황 점검, 평가, 보완대책 추진,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3. 계획수립 절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계획수립은 우선 현지조사를 통한 권역의 자원 등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지역을 진단하고 다른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 방향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부문별 계획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수립 과정>

4. 계획수립 사례

전형적인 우리나라 농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사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사례로 제시되는 권역은 2005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어 2007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설계 중에 있다..

가. 기본계획수립 경위

1) 기본계획수립에 앞서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을 통해 마을별 나눠먹기가 아니라 권역단위 공동사업이라는 기본적인 이해와 지역참여 증진을 유도하였고, 지역을 만들고 운영하는 책임자는 바로 주민이라는 주체의식을 강조하였다.

2) 또한 주민들의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을별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직접 자기 마을에 대한 잠재자원을 찾고, 발전과제에 대하여 고민하게 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다. 특히, 추석 전후로 준비기간을 두어 출향민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도록 유도 하였다.

3) 참여전문가는 지역특성 및 개발과제 등과 연계하여 경관분야와 친환경농업 전문가를 자문가로 위촉하여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게 하였다. 특히 친환경농업 전문가는 인근 지역에서 직접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어 주민들과 대화, 견학, 교육 등에 실질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4) 권역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잦은 협의 및 대화를 통해 개발과제를 도출하고 상하위 관련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본 권역의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여건, 주민의견, SWOT분석 등을 통해 장래 권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초 주민들이 예비계획(주민제안서)에서 구상하였던 개발수요는 주민들의 동의하에 일부 조정, 보완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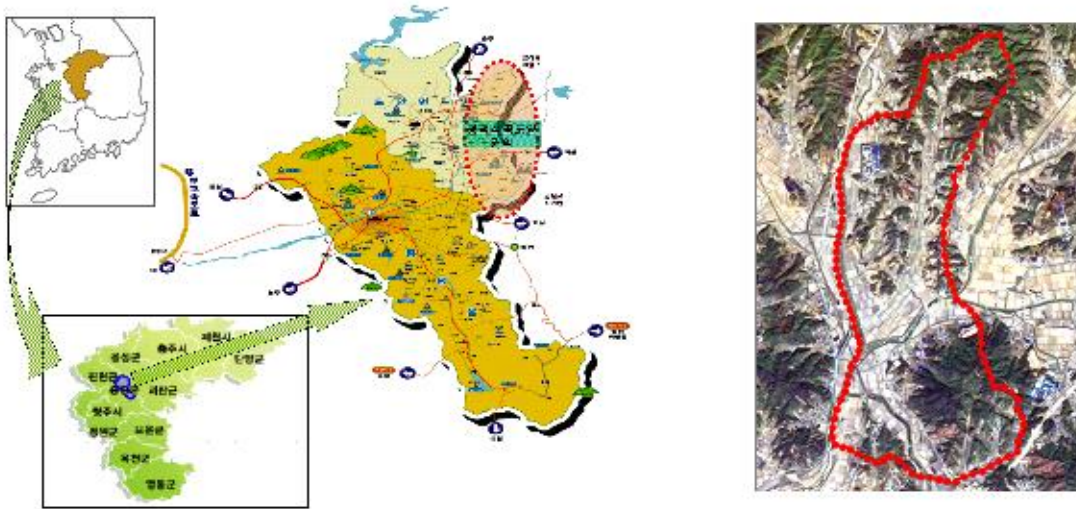
5)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2단계 자문과 농림부 실무자문위원회를 거치고 마을개발협의회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기본계획 내용

1) 권역의 개요

- 권역명 : 상그린(相green)
-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 석곡, 도당리(법정리 3개리)
- 면적 : 846ha (농경지:381ha, 임야:297ha, 기타: 168ha)
- 가구·인구 : 333호, 837명(농가 241호)

<권역위치도>



2). 권역의 특성

- 증평군은 공간적으로 충북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변 대도시의 위성도시 기능을 갖 으며, 본 권역은 증평군내에서도 친환경적 경관이 유지되는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으로 역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중부고속도로 증평IC와 국도 34, 36호선(4차선)이 인접하여 외부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편이다
- 권역전체 가구의 7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나, 쌀 위주의 일 반적인 관행 농업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소득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며, 마 을내 주택 및 담장 등이 노후되고, 사용하지 않는 폐창고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등 생활환경정비수준이 미흡하며, 특히 마을내 소규모 축사가 산재되어 정주환경 및 마을경관형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권역 상류부에 자원관리센터(쓰레기매립장)이 있어 혐오시설로 인식되었으나, 매립 및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최근 인근 학교에서 환경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방문하 고 있어 오히려 교육, 체험시설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권역내 주요 자원으로는 독립투사 연병호 생가 등 역사문화자원과 하천(3개소), 노거 수(8그루) 등 자연경관자원이 있으며, 자연농업전문가, 벼짚공예가, 동화작가, 게이트볼 선수단 등 인적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특히 본 권역은 권역외곽으로 국도2개노선이 마 을보다 높은 위치에서 통과하고 있어 권역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여건으로 자체 적으로 하천독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등 권역경관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원분포현황>

구 분	자 원 명
자연적 자원	하천3개소(문암천, 문방천, 보강천) 노거수(느티나무, 은행나무), 벚틀바위, 선돌바위
생활환경 자원	마을회관, 경로당, 게이트볼장, 자원관리센터
농어업 자원	친환경농업지역, 바이오청정농업지역, 버건 조장, 메기양식장, 제일종묘농산
역사문화 자원	광덕사 석조여래입상, 연병호생가, 효열문, 쌍열각, 광덕사, 정후사, 수도사
인적 자원	지역개발교육이수 지도자, 친환경농산물 인 증자, 게이트볼 회원, 자연농업전문가, 동화 작가, 벚짚공예가, 농촌생활도구 수집가 등



다. 여건 분석 및 개발과제 도출

- 권역의 입지적, 인문 사회적, 경관적, 농촌체험, 지역 농업적, 상·하위 관련 계획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비계획과 주민개발수요 등을 반영하여 권역의 SWOT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과제를 도출하였다
- 상·하위 관련계획은 권역과 직접 관련되는 계획과 인접 시·군의 관련계획까지도 포함하여 연계 검토함으로서 권역의 공간적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본 권역은 대도시 배후의 지속가능한 전원주거공간으로 공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권역의 잘 보존된 자연자원을 활용한 경관개선과 작부체계전환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농촌체험 등 관광관련 계획은 인근지역에서 '도·농교류특구'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역할정립이 필요

■ SWOT 분석

강 점(Strength)
· 역사문화자원이 풍부 · 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 · 마을리더의 의지가 강함 · 친환경농업 및 바이오농업 단지 지정 · 주변 연계자원 풍부 - 토종된장, 민속한식품, 인삼타운 등
기 회(Opportunity)
· 상위계획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부여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증가 · 행정복합도시 이전에 따른 배후입지 강화

약 점(Weakness)
· 재배작목 단순 - 재래식 쌀 농사 위주 · 환경농업인증 실적 미흡 · 자원관리센터로 지역 이미지 저하 · 기초생활여건 미흡 - 도로, 농로 포장 미흡, 주택 노후 · 고유브랜드 부재
위 험(threat)
· 농업경쟁력 약화 · 새로운 정주인구 정착 기반 미흡 · 미니 신생군(증평군)으로서의 지역인지도 부족

■ 개발과제 도출



라. 개발계획

도시배후지역의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권역가꾸기를 통한 아름다운 정주공간 조성 and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한 건강한 먹거리 생산공간으로 육성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하여 권역의 비전과 테마설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1) 기본방향

- 주민 자발적인 내집앞 가꾸기부터 시작하여 '권역 가꾸기'를 통해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
- 쌀 위주의 일반적인 지역농업을 재편하여 '건강한 먹거리' 생산 공간으로 특화
-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스스로 마을을 경영할 줄 아는 자생력 확보

2) 권역 비전 및 실천전략

- 실천전략은 쾌적한 정주환경개선과 지역농업재편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을때 농도교류와 건강먹거리 특화 등을 연계전략으로 추진하며, 다음단계로 권역의 상품화와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
- 또한, 권역 명칭은 당초 3개법 정리 모두를 포함한 '광덕·석



곡·도당권역'이었으나, 호칭 등의 어려움으로 주민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언제나 항상 도시와 농촌이 함께, 최고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의미의 '상그린'(相, 上green)으로 네이밍하였다

3) 마을별 역할 부여(공간별 계획)

- 권역내 3개마을(법정리)의 특성에 따라 마을별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맞는 관련계획을 구상하였음
- 석곡리는 권역의 중심공간으로, 광덕리는 특작생산 및 환경체험 공간, 도당리는 경관형성 및 농촌체험공간으로 기능 부여하고
- 도로망, 농경지, 자원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간별 역할에 맞는 시설위주로 배치계획하였음

4) 분야별 주요계획

가) 권역 가꾸기

■ 개발방향

- 주민들 스스로 우선하여 '내집앞 가꾸기'부터 추진
- 하천, 노거수 등 권역의 잠재 자원을 최대한 활용
- 주민 전체 공동 참여하에 마을 정비 추진

■ 주요계획내용

- 미래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정주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는 주민들 스스로 '내집 앞은 내가 가꾸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마을내부로부터 정비를 시작하여, 권역전체의 주거환경개선과 경관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
- 일부마을(석곡2리)에서는 계획수립기간중에 주민회의를 통해 집집마다 감나무 5그루이상씩 심기를 결의 추진중

주요계획	주요내용	활용방안	비 고
내집앞가꾸기	8개 마을별로 자체결의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집주변정비하기	주민들 마을가꾸기 참여인식 및 붐조성	(자체추진)
경관벨트조성	권역내 3개하천독을 이용하여 경관수종식재 및 산책조조성	8개마을을 연결하는 동선확보 및 권역이미지 개선	
마을리모델링	마을내 주택, 담장, 폐창고 등을 마을단위로 전문경관개선계획에 따라 정비	마을단위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 재정비를 통해 정주여건개선	
마을 숲 정비	기존 마을주변 야산을 이용하여 과실수, 꽃나무 등 식재 및 간이쉼터 조성	주민쉼터 및 마을경관형성	
전통자원정비	마을별 노거수 및 우물터, 효열각 등 주변정비	자원보존 및 휴식공간활용	
권역가꾸기 자체 규약제정	집주변정비하기, 농자재 방치금지, 주택정비형태, 경관시설 관리 등에 대한 자체 규약제정 운영	전문경관형성계획을 이용하여 권역자체 실천규약을 마련, 운영	

※특히, 자원관리센터(쓰레기매립장)는 증평군에서 1차매립지를 중심으로 주변정비를 통해 친환경체험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계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음

나) 지역농업 재편에 따른 개발방향

■ 개발방향

- 쌀 위주의 작부체계를 콩 등 특작위주로 다양하게 전환
-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권역내 자연순환농업 실천
-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위주로 하며, 유통은 인근의 전문기업과 결연 추진

■ 주요계획내용

- 쌀 위주의 농업형태를 콩과 배추 등 이모작이 가능하도록 작부체계를 전환하고, 현재 소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들녘단위로 권역전체로 확대, 또한 친환경축사(한우)와 연계하여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구현 추진
- 유통은 권역내에서는 우선 품질좋은 농산물의 생산위주에 전념하고, 판매는 인근의 전문기업과 계약재배방식으로 추진하며 단계적으로 자체 유통방안 추진

주요계획	주요내용	활용방안	비 고
작부체계 전환	콩재배 확대 작목반 구성 및 재배단지 조성	콩+배추 등 이모작 시행 인근 장류가공업체 및 (주)고려홍 삼김치 등 전문기업과 연대	
친환경농업 확대	EM농법(액비)과 자연농법 이용 - '13년까지 전체농경지의 70%까지 확대 - 액비저장시설, 자연농업시범단지 조성	친환경 건강먹거리 생산지역으로 특화. - 토종미생물 이용한 자연농업단지 활 성화	
친환경공동축사	현재 마을내 소규모 축사를 주거 환경 개선과 연계하여 마을 밖으로 유도, 친환경공동축사 시설설치	고품질유지 및 마을주거환경개선	
유통계획	초기에는 인근 전문기업과 계약재 배방식, 2단계에 소포장시설 등 계획	지역역량 육성 후 2단계에 소포장 등 자체출하 추진	
친환경농업 자체규약제정	친환경농업유지를 위한 자체규약 제정. 품질검사, 전문가 컨설팅 등 추진	적정규격 품질유지로 신뢰 제고	

다) 주민공동체 활동과 주민역량강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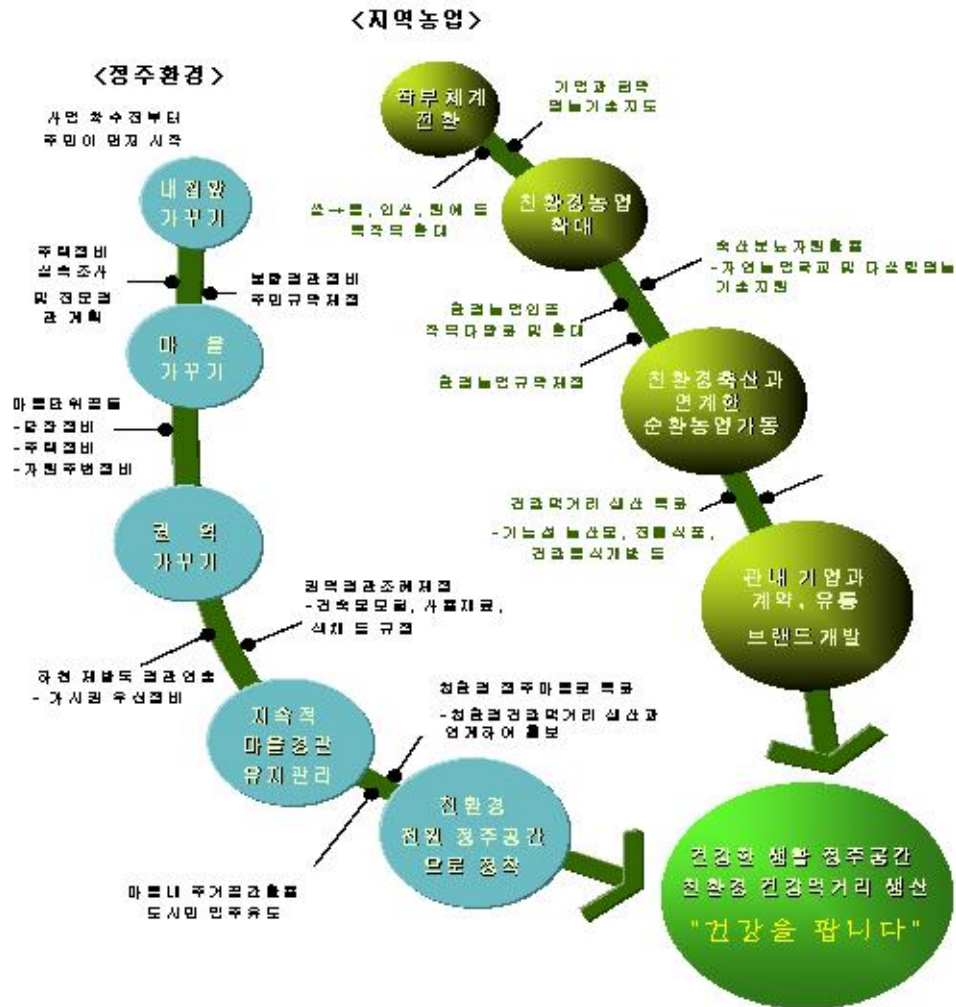
■ 개발방향

- 권역내 마을간, 주민간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동이용시설 확충과 지속적
으로 주민들 스스로 지역을 경영(운영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
전문가 컨설팅, 상품개발 등을 계획

■ 주요계획내용

- 권역중심공간에 공동행사, 교육장, 문화활동, 주차장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복합커뮤니
티 센터 설치하고, 상습적인 위험시설에 대한 안정적 정비를 위한 재해대비시설과 게이
트볼장 등 공동체육시설 등을 계획
- 주민들 스스로 권역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분야별 전담팀(그룹)으
로 구성하여 팀별 역할에 맞는 교육과 컨설팅 등으로 담당분야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
 - 친환경농업팀, 권역가꾸기팀, 농도교류팀, 권역홍보팀 등 4개팀으로 구성하여 팀별 대표
자와 팀원을 지명
 - 우선 주민들 자생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연계한 권역홍보와 지속적인
지역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단계별 추진전략을 계획하였음

< 혁신전략의 단계별 추진 로드맵 >



라) 권역 운영관리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자체 운영 규약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특히 다수 농가의 참여가 요구되는 친환경농업 실천과 마을경관 개선은 분야별로 자체 규약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설물별로 유지관리 주체를 지정하여 전담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시설에 참여하는 농가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권역 공동기금을 출연하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였다.



마. 권역의 특성화 부분

본 권역에서는 지역여건상 경관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어 당초 주민들 예비계획에서의 대규모 소득기반시설 요구부분을 경관분야로 대폭전환하게 되었다. 특히, 마을내 노후된 주택과 방치된 폐건물이 마을경관과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어 이를 개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개선효과가 낮으므로, 마을단위로 전 주민 동의하에 전문 경관개선 지침에 따라 공동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8개 마을 중 3개 마을은 주민들이 동의하에 계획에 반영하였다. 전체 소요 비용 중 일부를 보조금과 마을 공동으로 계획하였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번복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농촌마을의 정주 경관개선으로 주민을 물론, 외지인들도 살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좀 더 많은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과 농촌간의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상호 학습을 통한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2004년 사업추진 권역인 강원도 인제 용대권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교류방문과 지역농산물 교류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용대권역은 지역 기후 특성상 황태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반면, 쌀 등 농업생산활동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상그린 권역의 쌀과 용대권역의 황태를 교류하고 상호 교류 판매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계사업추진으로 지역개발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 증평군에서는 본 사업과는 별도로 권역 내 도로망 확충과 하천정비, 자원관리센터 공원화 정비계획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개발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맺는 말

본 사업은 농촌의 몇 개 마을을 묶어 하나의 권역을 대상으로 종합 개발하고, 주민들이 주도하여 제안서를 만들어 사업을 신청하며, 기본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장래비전, 세부 개발계획, 향후 지역운영관리 등에 참여해야만 하는 실질적인 상향식 추진방식이나,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촌여건상 사업초기인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처음에는 ‘과연 이러한 여건하에서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계획 수립 기간 동안 수시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함께 견학과 토론하며, 어느때는 막걸리 잔도 같이 나눠가면서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 차츰 자발적인 참여 동기가 부여되었고 새로운 공동체 활성화 붐이 형성되는 것을 볼수 있었다.

지역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이나 전문 검토분석을 할 경우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역량, 생활여건, 농업여건, 역사문화 등을 고려하여 진정으로 눈높이를 맞춘 상태에서 접근할 필요하 있다. 아무리 화려한 계획이나 이론은 도입한다고 해도 앞으로 이를 수용하고 추진 해야 할 지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지역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획수립시 충분히 지역특성과 발전전망을 고려하여 핵심개발 전략을 1 ~ 2개 정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집약적 개발방식이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시행지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고루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럴 경우 오히려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는 곤란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 필요한 핵심분야(주테마)를 도출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본계획을 수립자의 입장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를 말한다면 ‘우리나라 농촌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기를 부여했다’라는 것이다. 즉 주민들에게 주인의식을 인식하게 하고 분명한 역할을 줌으로써 오히려 관심과 참여의지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처음 시도하는 권역단위 공동사업으로 간혹 마을간, 주민간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지역개발 추진에 큰 장애요인은 아닐 것이다. 혹자는 새마을 사업이후 과소화 되어가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공동체 활성화 붐을 형성하는데 본 사업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앞으로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자들이 함께 노력하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소화 되어가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이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